

[TV]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고현정 "작품 위해서라면 베드신 불사"

홍상수 감독 '해변의 여인'서 싱어송 라이터 김문숙역 맡아

자녀 SBS TV 드라마 '봄날'로 복귀하면서 "배우로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던 고현정(35).

고현정은 스크린 데뷔작으로 영화사 불이 제작하는 홍상수 감독의 일곱번째 영화 '해변의 여인'을 선택해 다시 한번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영화는 함께 여정을 떠난 각기 다른 개성의 남녀 네 명이 벌이는 로맨스를 담는다. 시나리오의 50% 이상을 현장에서 직접 쓰는 홍 감독의 제작 스타일은 이번 영화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돼 지금까지 확정된 영화의 줄거리와는 이질적이다. 고현정은 '해변의 여인'에서 영화음악을 전공한 싱어송라이터 김문숙을 연기한다. 문숙은 독일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현재는 '백수'.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며 혼자 고향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회에 고현정을 만났다. 고현정은 이번 영화 출연에 대해 "두려움이 앞선다"며 말문을 열었다. "영화는 여러 분이 관심을 가져주고 일정 부분 참여를 해줘야 하는 장르입니다. 그동안 안방극장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이제야 성인에 돼 여러 눈앞에 나서는 기분입니다. 그럼일기를 끝내고 풀만 처진 일기장을 선물받은 느낌입니다." 고현정은 스크린 데뷔를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 큰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현정은 "내가 했던 작품과는 별개로 홍 감독의 작품을 팬으로서 좋아했다"면서 "홍 감독의 작품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출연 제의를 받고는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작품마다 진한 베드신을 선보였던 감독으로 유명하다. 고현정은 "홍 감독이 베드신을 요구하면 응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감독이 원한다면 관객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감독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작품을 위해 배우로서 진지하게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해 영화를 위해서라면 베드신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촬영을 시작한 '해변의 여인'은 내달 말 크랭크업한 뒤 후반작업을 거쳐 9월 말 개봉될 예정이다.

리빙TV Living TV. 명포인트 탐사 피싱투어-추차군도 횡간도(오후 3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낚시 명포인트 소개와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창업 24년. 컴퓨터로 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보청기" 국제보청기가 자연의 소리를 들려 드립니다. 서석점(동구청 남동생당사) (062) 227-9940. 홍장점(홍파권리안)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19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EBS1, KBS KOREA, EBS2, CNN, AFN Korea, STAR SPORTS, BBS 불교방송)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